

전남도, 지난해 합계출산율 전국 광역시·도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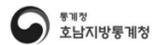
호남지방통계청 인구동향

전남 0.97명·광주 0.71명 기록
영광 1.65명 기초단체중 최고
'첫째아' 광주 56%·전남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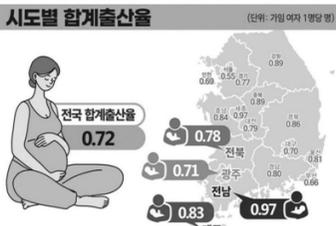
전남도가 지난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합계출산율 1위를 차지했다. 또 시군구 기초지자체 중에선 영광군의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022년 대비 광주 합계출산율(-16.4%)은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호남지역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합계출산율은 0.97명, 영광군 1.65명, 광주 0.71명을 기록했다. 전남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시와 함께 가장 높은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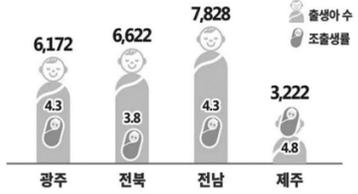
2023년 호남·제주지역 인구동향



2023년 호남·제주지역 인구동향.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

출생아 수 및 조출생률



시도별 합계출산율



시군구

조출생률 (단위: 인구 1천명당 명) | 합계출산율 (단위: 기립 여자 1명당 명) | 모의 평균 출산연령 (단위: 세)

통계다.

광주·전남지역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은 30~34세, 35~39세, 25~29세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평균 출산연령은 광주 33.2세, 전남 32.9세로 파악됐다.

이 중 전남 22개 시·군 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강진군(34.3세)이 가장 높고 광양시·장성군(32.3세)이 가장 낮았다.

출생아 중 첫째아 비중은 광주 56.8%, 전남 53.6%로 나타났다. 2022년 대비 첫째아 비중은 증가했으나 둘째아, 셋째아 비중이 각각 감소해 다둥이 출산 가정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출생 성비(여자 100명당 남아 수)는 광주 103.7명, 전남 101.1명을 기록해 2022년(광주 107.1명·전남 104.5명) 대비 모두 감소했다.

시·군·구별 조(粗) 출생률(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은 광주의 경우 광산구(1917명), 북구(1856명) 순등으로 높았다.

전남은 영광군(7.0명), 나주시(6.2명), 광양시(5.4명) 순등으로 높았다.

지난해 사망자는 전남 1만9786명, 광주 8866명으로 집계됐다. 조사망율(인구 1000명 당 사망자 수)은 전남 11.0명, 광주 6.2명을 기록했다.

연령별 사망률(해당 지역 인구 1000명 당 사망자 수)은 광주 87.2명, 전남 84.7명으로 80세 이상이 가장 높았다.

또 2022년 대비 40~49세 연령대 사망률은 광주(-1.5명), 전남(-4.1명) 모두 감소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전남 6157건, 광주 5169건으로 2022년 대비 광주(5.45)는 증가했으나 전남(-0.4%)은 감소했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광주신세계, '프리미엄 패딩' 팝업 오픈

캐나다 구스·노비스

광주신세계가 급격하게 추워진 날씨에 보온성과 기능성을 갖춘 프리미엄 패딩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브랜드를 선보인다.

28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프리미엄 패딩 브랜드의 대명사로 불리는 '캐나다 구스'는 본관 2층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팝업 매장을 열었다. 추위로 유명한 나라 캐나다라는 이름을 넣은 브랜드답게 모든 패딩 제품을 캐나다에서 100% 생산하며 탁월한 보온성으로 유명하다. 프리미엄 패딩 브랜드 중에서 아웃도어 활동에 가장 적합한 제품으로 손꼽히는 브랜드다.

광주신세계 본관 2층 캐나다 구스 매장에서는 인기 제품인 익스페디션과 랭포드, 맥밀란 등을 만날 수 있다.

캐나다 구스 출신 로빈 예이츠가 만든 '노비스' 역시 캐나다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월부터 광주신세계 본관 3층에 팝업 매장을 연 노비스는 남성, 여성 인기 제품인 야테시와 쉬라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는 중이다. 노비스에서는 팝업 오픈을 기념해 다음달 31일까지 100/200만 원 구매시 10/20만원 할인 프로모션을 펼친다.

같은 층에서 만날 수 있는 '무스너클' 역시 지난 10월 광주신세계 본관 3층에 노비스와 함께 오픈했다. 무스너클을 역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뛰어난 보온성을 갖춘 프리미엄 패딩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신세계가 다양한 프리미엄 패딩 브랜드를 선보인다. 사진은 본관 2층에 마련된 '캐나다 구스' 매장. 광주신세계 제공

앞선 두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캐나다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무스너클은 캐나다를 상징하는 동물인 사슴을 가리키는 단어 '무스'(Moose)와 캐나다 아이스 하키의 스포츠 정신을 뜻하는 '너클'(Knuckles)을 조합해 탄생했다. 캐나다 구스와 노비스와 비교했을 때 스포티한 디자인을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워 젊은층에서 선호하는 프리미엄 패딩으로 알려졌다.

광주신세계 본관 3층 무스너클 팝업 매장에는 인기 모델인 데비 바머 등을 만날 수 있다. 오픈을 기념해 다음달 31일까지 최대 30% 할인을 진행한다. 일부 품목은 제외된다. 나다운 기자

광주인자위,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 성과보고회'

사업 현황·우수사례 등 공유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광주인자위)는 지난 27일 광주위더스 웨딩홀에서 '2024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광주지역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이하 산대특) 사업을 운영하는 27개 훈련기관 대표 및 담당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광주지역 산대특 사업 현황과 운영 우수기관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인자위 정현경 수석은 산대특 사업이 시작된 2022년 이후 3년 연속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밝히며 '광주지역 산대

특 사업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올해 광주지역 육성산업 및 지원산업 직종 선정과 훈련 및 인력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훈련과정 개설 성과 등을 상세히 공개했다.

이어 산대특 운영 우수사례도 발표됐다. 스마트인재개발원 김미희 팀장은 '모집부터 취업까지 A to Z'의 주제로 IT관련 차별화된 교육 운영시스템을 소개했고, 기업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프로젝트 발표와 채용을 동시에 진행하는 과정을 발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광주인자위 이호형 사무처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광주지역의 산업구조변화로 인한 산업계 필요 인력을 양성하는 산대

특 사업의 우수사례가 많이 전파되기를 바란다"며 "광주인자위는 내년도 산대특 사업을 통해 구직자의 취업률을 높이고,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대특 사업은 산업구조변화 등 신산업육성과 고용 위기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하는 분야의 재직자 및 구직자의 고용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특화사업으로 지역별 산업변화에 맞추어 훈련과정의 적시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훈련생에게는 훈련비 전액지원과 과정에 따라 특별훈련수당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최권범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 A16 LTE' 국내 출시

실속형 스마트폰... 6.7형 대화면

삼성전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꼭 필요한 기능을 모두 갖춘 실속형 스마트폰 '갤럭시 A16 LTE(Galaxy A16 LTE)'를 29일 국내 출시한다.

'갤럭시 A16 LTE'는 169.1mm(6.7형)의 대화면 디스플레이, 5천만 화소 후면 카메라, 500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했다. 삼성워렛, IP54등급의 방수·방진 등 실용적인 기능도 함께 지원한다.

'갤럭시 A16 LTE'는 이동통신 3사 모

델과 자급제 모델로 출시된다. 색상은 블랙, 그레이, 라이트 그린 3가지이며, 가격은 31만9000원이다. 구매는 전국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 이동통신사 온·오프라인 매장, 오픈마켓 등에서 가능하다.

슈퍼 AMOLED(AM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갤럭시 A16 LTE'는 최대 90Hz 화면 주사율을 지원하고, 전자 대비 더 커진 화면은 몰입감 넘치는 콘텐츠 감상 경험을 제공한다.

5000만 화소의 고해상도 광각 후면 카메라는 사진 촬영에 즐거움을 더해주고,

1300만 화소의 전면 카메라는 셀피(Selfie) 촬영에 용이하다.

'갤럭시 A16 LTE'는 '삼성워렛'을 지원한다. 온·오프라인 간편결제는 물론 해외 결제, 국내외 교통카드, 전자증명서, 모바일 신분증, 탑승권, 티켓, 멤버십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A16 LTE'를 개통하는 고객에게 △'유튜브 프리미엄' 2개월 무료 체험권 △'월라' 3개월 무료 구독권과 추가 3개월 30% 할인권 △'마이크로소프트 365 베이직' 6개월 체험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혜택의 내용과 기간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삼성멤버스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소영 기자

재테크 칼럼

비포장 도로 통행료 내리는 가상자산 과세

민주당이 진성준 정책의장 등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없다며 가상자산 과세에 대 강경한 입장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기 수순에 들어가면서 가상자산 과세도 당연히 폐기 또는 연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금투세와의 형평성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 밖으로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가상자산 과세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경제에 관해 무능하고 어설픈 민주당은 과거에도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을 남발해 지탄을 받아왔다. 집권 당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최저임금을 한꺼번에 올려 서민인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고, 부동산 값을 잡는다고 수십 번 거꾸로 가는 부동산 정책을 남발하다니 결국은 역사상 가장 큰 부동산 폭등세를 연출해 냈다. 원전 폐기에 이어 임대차 3법도 잠잠하던 전세시장에 대란을 일으켰다. 무능했던 민주당의 흑역사다.

민주당이 경제정책에 무능했던 이유는 지나친 진보 이상주의에 빠져서 현실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외환위기로 도탄에 빠진 한국을 1년 만에 정상화시키고 IT 강국으로 도약시킨 고 김대중 대통령의 가르침을 돌아봐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인은 선비의 이상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다. 과연 지금의 민주당은 상인의 감각을 갖고 가상자산 과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가상자산 과세는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완전한 과세 시스템이 만들어진 다음에 과세하는 것이 맞다. 지금 가상자산에 과세하는 것은 민주당의 한 의원이 말했듯이 돌투성이인 비포장 도로에서 통행료를 내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두지 않고 개인 지갑으로 옮기거나 개인 지갑에서 해외의 거래소로 옮겨 거래할 시 추적의 문제와 국내 거래소라고 할 지라도 빈

틈없는 완전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지, 손실을 입었을 때는 어떤 보상책이 있는지 등 과세를 위해서는 많은 보완책이 필요하다.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청년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희망을 잃은 그들은 마지막 기회로 가상화폐를 통해 부자가 되어 보겠다며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 작은 희망의 사다리를 민주당이 걷어차서는 안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가 없는 정치인들이 무작정 과세를 운운하고 청년들의 희망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과연 국가와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